

I.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철학적 정초

이 장에서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철학적 정초 문제를 검토하면서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1절에서 양적 연구의 영역에서 정초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차원의 학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물리학을 예로 들어 물리학의 철학적 정초 문제를 검토하면서 물리학의 철학적 정초가 물리학의 방법에 대해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거기에 이어 우리는 3절에서 물리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경우에도 철학적 정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이어 우리는 4절에서 6절까지에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관련해 철학적 정초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방법, 구체적인 연구절차, 그리고 그의 다양한 설계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거기에 이어 우리는 7절에서 방법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1. 학문의 지형도와 학문들 사이의 정초관계

연구자가 처한 시대상황 또는 그의 지적 관심 등이 다름에 따라 학문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학문을 분류하려는 시도는 이미 고대 희랍철학에서 시작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형이상학』 1권 1장에서 인간의 인식유형을 구별하면서 실용적 지식, 이론적 지식, 지혜 등을 구별한다.(Aristoteles 2003, 980a-982a) 근세철학의 문을 연 데카르트는 그의 『철학원리』 불어 번역자에게 보내는 저자 서문에서 학문 (혹은 철학) 전체를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나무의 뿌리는 형이상학이고, 등치는 자연학이며, 이러한 등치로부터 뺀어나가는 가지는 크게 기계학, 의학, 도덕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Descartes 1985a, 186)

후설 역시 현상학적 관점에서 학문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의 일차적인 관심이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질적 연구의 문제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심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별하면서 학문분야에 대한 후설의 구별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정확한 구별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하고 양적 연구를 일단 일상적인 의미의 자연과학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자. 그러면 우선 양적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아 철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의 지형도를 그려보자.

1) 응용자연과학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자연과학에는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자연과학 중에서는 현실세계에 구체적으로 응용되면서 현실세계를 실제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지닌 과학이 있는데, 이러한 과학이 응용자연과학이다. 앞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학문의 나무에 대해 언급했는데 응용과학이란 이러한 학문의 나무에서 가지에 해당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데카르트는 응용과학을 학문의 나무의 가지에 비유하면서 응용과학의 특성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를 심어 키울 경우 나중에 수확할 때 최종적으로 과실을 따는 부분은 뿌리도 아니요, 등치도 아니고 바로 가지이듯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학문활동을 할 경우 현실생활에 실질적인 효용을 줄 수 있는 “과실”을 최종적으로 선사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응용과학이다.

현실적인 효용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응용과학은 그 어떤 여타 유형의 학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여타의 유형의 학문과는 달리 응용과학은 언제나 냉엄한 현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현실과의 부단한 교섭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과학이

다. 과일나무의 가지들이 건강하고 충실해야만 그 가지에서 많은 과일들을 딸 수 있듯이 응용과학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만 그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효용을 줄 수 있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세계는 아무런 문제없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응용과학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세계에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학이다.

이처럼 응용과학이 인간이 맞이하는 다양한 유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이 장차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 혹은 지금까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상황이 문제를 지닌 상황으로 여겨질 경우 지금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응용과학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문제들의 유형의 수만큼 다양한 유형의 응용과학이 존재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데카르트는 학문의 나무의 가지에 해당하는 응용과학은 모두 기계학, 의학, 도덕학 등 3가지 핵심적인 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바로 인간이 겪게 되는 어려움 내지 문제점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그의 견해에 기인한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이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은 1) 물리적인 외계대상들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2) 자신의 신체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그리고 3) 자신의 마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첫 번째의 어려움을 해결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계학이요 두 번째의 어려움을 극복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의학이며, 세 번째의 어려움을 극복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도덕학이다.

2) 순수자연과학

응용과학이 현실적인 효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학의 내적 논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근원적인 학이 아니라 파생적인 학이다. 파생적인 학으로서의 응용과학은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나무의 가지가 나무의 등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이처럼 응용과학의 등치에 해당하는 학을 순수자연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순수자연과학의 예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을 들 수 있다.

순수자연과학은 응용과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감각적 경험을 토대로 전개되는 일종의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그것은 응용과학과 마찬가지로 일군의 대상에 대해 타당한 어떤 일반적 이론을 수립함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자연과학은 응용과학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용과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개되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함을 목표로 하며 그러한 한에서 연구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달리 순수자연과학은 연구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된 어떤 특수한 문제를 해결함을 목표로 하지 않는 순수이론적인 학문이다. 예를 들면 의학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 순간 여기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는 것과는 달리 물리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어떤 대상”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상황을 벗어나 일반적인 양상에서 어떤 일군의 대상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처럼 물리학을 비롯한 화학, 생물학 등의 과학이 연구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순수한” 대상을 탐구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들이 “순수자연과학”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론의 전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순수자연과학은 응용과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순수자연과학에서의 발견이 응용과학의 발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순수자연과학이 응용과학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순수자연과학의 연구경향 및 연구관심은 응용과학의 연구경향 및 연구관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과학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이처럼 순수자연과학의 연구경향 및 연구관심이 응용과학의 연구경향 및 연구관심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순수자연과학으로서의 화학의 발전이 연금술과 연결

된 응용과학적 관심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순수자연과학이 응용과학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학의 내적 논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응용과학은 순수자연과학을 전제한다. 응용과학이 순수과학을 전제한다 함은 그 누구도 순수과학적 지식이 없이는 응용과학적 지식을 획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 누구도 물리학적 지식, 화학적 지식, 생물학적 지식 등이 없이는 의학적 지식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응용과학이 학문의 나무에서 가지에 비유될 수 있다면 순수자연과학은 등치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며 순수자연과학은 응용과학의 이론적 토대라 불릴 수 있다.

3) 영역적 존재론

그러나 순수자연과학은 그 무엇의 도움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학문 이 아니다. 과학의 내적 논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응용과학이 순수자연과학을 전제하고 있듯이 순수자연과학 역시 나름대로 보다 더 근원적인 학들을 전제한다. 그런데 순수자연과학이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보다 더 근원적인 학문 중의 하나는 바로 영역적 존재론인데, 뉴턴의 고전물리학을 예로 들어 영역적 존재론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뉴턴의 고전물리학 체계를 담고 있는 뉴턴의 저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Newton 1960)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아무런 전제도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의 입문부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뉴턴은 고전물리학적 대상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전제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고전물리학 이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뉴턴이 이 책의 입문 부분에서 논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전제이다.(Newton 1960, 6) 우선 뉴턴의 고전물리학을 떠받들고 있는 시간에 대한 전제를 살펴보자.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현상적 시간과 절대적 시간을 구별하고 있다. 이 경우 현상적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대상과 관련해서 체험되는 시간, 예를 들면 하루, 한달, 한해 등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며 절대적 시간은 “그 무엇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는,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 시간이 바로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전체 체계를 떠받들고 있는 시간이다.

더 나아가 뉴턴은 공간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시간과 관련해 현상적 시간과 절대적 시간의 구별이 가능하듯이 공간에 대해서도 현상적 공간과 절대적 공간을 구별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현상적 공간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대상과 관련해 체험되는 공간,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안의 공간, 어떤 배 안의 공간, 지구 내부의 공간 등을 의미하며 절대적 공간은 그 어떤 대상과도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바로 이처럼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공간이 바로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전체체계를 떠받들고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전개되고 있다. 뉴턴이 규정한 의미에서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대상이 공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처럼 뉴턴의 고전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대상이 공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루는 학이 바로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이다. 물론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이 다루는 대상이 앞서 살펴본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만은 아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객관적 시간, 객관적 공간 이외에도 거리, 속도 등 뉴턴의 고전물리학적 대상 전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전제하고 전개되는데,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전체 체계

를 지탱해 주는 이러한 본질적 속성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이다.

우리는 고전물리학과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을 명료하게 구별해야 한다. 고전물리학은 경험과학의 일종이며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은 경험과학이 아니라 고전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대상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루는 본질학으로서 그것은 철학의 일종이다. 그리고 경험과학자로서 뉴턴이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전개하고자 했던 것은 경험과학으로서의 고전물리학이지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은 아니다. 물론 고전물리학의 근본전제를 다루는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에 대한 이해가 고전물리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필요한 한에서 뉴턴은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실제로 뉴턴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해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은 고전물리학적 대상 전체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속성들을 다루는 학으로서 고전물리학에만 고유한 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 영역이 존재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적 대상 전체와는 구별되는 생물학적 대상 전체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속성들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들을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생물학의 영역적 존재론도 가능할 것이며, 화학적 대상 전체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속성들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본질적인 속성들을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화학의 영역적 존재론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리경제학적 대상 전체가 공유하는 본질적인 속성들을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수리경제학의 영역적 존재론도 가능할 것이며 실험심리학적 대상 전체가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들을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실험심리학의 영역적 존재론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학문이 다루는 대상 전체가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을 다루는 학문을 영역적 존재론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본질적 속성이 그 대상 영역에만 타당한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4) 형식적 존재론

과학의 내적 논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험적인 순수자연과학은 영역적 존재론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순수자연과학도 그것이 체계적인 진술체계로서의 학으로서 전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역적 존재론뿐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존재론, 즉 형식적 존재론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형식적 존재론이란 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대상이 충족시켜야 할 형식적인 조건 혹은 그 어떤 학이든 그것이 학으로서 전개될 수 있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형식적인 조건들을 탐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진술체계는 학문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만다.

이러한 형식적 조건을 다루는 학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전통적인 형식논리학이다. 논리학은 다양한 유형의 타당한 추론형식을 다루는데 그 어떤 진술체계도 이러한 추론형식에 위배될 경우 그것은 학적 이론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모든 A가 B이고 모든 B가 C이면 모든 A는 C이다”라는 추론 형식에 위배되는 모든 진술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무리 심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학적 이론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타당한 학문의 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진술체계는 이러한 추론형식을 비롯해 여타의 다양한 유형의 타당한 추론형식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형식적 존재론이 전통적인 형식논리학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존재론의 외연은 전통적인 형식논리학의 외연보다 훨씬 더 넓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진술체계가 어떤 학문의 구성 요소로 등장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조건이 형식논리학이 제시하는 형식적 조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밝혀진다. 실제로 어떤 진술체

계가 학문의 구성요소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형식논리적 조건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형식적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적 조건들의 예로서 “모든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보다 작다”, “A와 B가 같으면 A와 C의 합과 B와 C의 합은 같다”, “A와 B가 같으면 A와 C의 차이와 B와 C의 차이는 같다”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명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적인 순수자연과학은 그것이 타당한 학일 수 있기 위해서 형식적 존재론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형식적 존재론은 순수자연과학이 가능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전제조건일 뿐 아니라 모든 여타의 학이 가능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전제조건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순수자연과학을 전제하고 전개되는 응용과학뿐 아니라, 순수자연과학이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적 존재론도 마찬가지이다. 영역적 존재론 역시 그것이 타당한 학으로 전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식적 존재론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 조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5) 초월론적 현상학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학문이 다루는 다양한 대상들이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대상들이 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기 위해서 그것들은 일단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면서 경험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후설은 다양한 유형의 대상 및 세계가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면서 경험되는 과정을 대상 및 세계가 의식에 의해 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성과정을 통해 대상 및 세계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우리의 의식에 주어진다. 예를 들면 내가 길가를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동일한 그 어떤 대상은 “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 “소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 “커다란 소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의식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대상 및 세계를 구성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다양한 유형의 지향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의미를 지닌 대상 및 세계를 구성한다. 우리의 의식은 대상 및 세계를 향해 있으면서 그것들과 의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의식이 대상 및 세계를 향하면서 그들과 가지게 되는 의식적인 관계가 다름 아닌 지향성이다. 예를 들면 내가 길가에 서있는 어떤 대상을 접하면서 그것을 “나무”, “소나무”, “커다란 소나무”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경험하였을 경우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나의 의식의 지향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저 대상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향성을 지닌 의식이 대상을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의식이 일차적으로 대상을 막연한 양상에서, 다시 말해 막연한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경험한 후 그를 토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경험해 나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든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의식은 내가 접하는 대상을 우선 가장 막연하게 “그 무엇”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경험한 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 “소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 “커다란 소나무”라는 의미를 지닌 대상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 대상 및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은 언제나 보다 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의 경험으로부터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의 경험으로 “초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 및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은 “초월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의식이 지닌 이러한 “초월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의식을 정의할 경우 의식은 “초월적 의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일체의 대상 및 세계는 구성작용이라는 뿌리로부터 구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구성작용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체의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성작용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일체의 것들이 경험될 수 있는 가능근거이다. 이처럼 일체의 것들에 대한 경험의 가능 근거로서의 구성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대상 및 세계도 경험할 수 없고 그에 대해 논하면서 탐구할 수도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것의 뿌리인 구성작용을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은 일체의 경험과학뿐 아니라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재론의 뿌리, 즉 정초토대라 할 수 있다. 경험과학뿐 아니라, 영역적 존재론과 형식적 존재론의 정체를 그 뿌리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탐구하는 다양한 대상들의 구성근거를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를 통해 비로소 다양한 유형의 학문의 정체가 그 구성적 근거로부터 해명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차원의 학문의 지형도를 그려가면서 어떤 차원의 학문이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차원의 학문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든가 또는 어떤 차원의 학문이 어떤 차원의 학문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두 가지 차원의 학문과 관련해 1) 논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다른 학문의 전제가 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서 다른 학문의 토대가 되는 학문과 2) 논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다른 학문을 전제하거나 다른 학문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는 학문을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앞의 것을 근원적인 학문이라 부를 수 있고 뒤의 것을 파생적인 학문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두 가지 유형의 학문 중에서 하나의 것은 근원적인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고 다른 것은 파생적인 학문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경우 파생적인 학문은 근원적인 학문에 정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차원의 학문 중에서 응용자연과학은 순수자연과학을 비롯하여 영역적 존재론, 형식적 존재론, 초월론적 현상학 등에 정초되어 있고 순수자연과학은 영역적 존재론, 형식적 존재론, 초월론적 현상학 등에 정초되어 있으며 영역적 존재론은 형식적 존재론과 초월론적 현상학에, 그리고 형식적 존재론은 초월론적 현상학에 정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그 어떤 다른 학문에 정초되어 있지 않으면서 모든 여타의 학문을 정초해주는 학문이며 따라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자신의 정초토대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2. 정초의 문제와 학문 방법의 문제: 고전물리학의 예

어떤 학문의 정초의 문제는 그 학문의 연구 방법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어떤 학문을 정초해주는 학문들은 그 학문에게 타당한 연구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순수자연과학의 하나인 고전물리학을 예로 들어 순수자연과학의 정초문제가 그것의 연구 방법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순수자연과학인 고전물리학이 응용자연과학의 정초토대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영역적 존재론, 형식적 존재론, 초월론적 현상학 등에 정초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 다른 3가지 차원의 철학적 현상학에 의한 고전물리학의 정초를 각기 영역적 존재론적 정초, 형식적 존재론적 정초,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순수자연과학이 이러한 3가지 차원의 철학적 현상학에 정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방법적 토대를 이러한 3가지 차원의 철학적 현상학에서 길어오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초월론적 현상학, 형식적 존재론과 순수자연과학의 영역적 존재론은 순수자연과학의 방법적 토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정초문제가 순수자연과학의 방법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형식적 존재론적 정초가 순수자연과학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 살펴보자.

1) 형식적 존재론적 정초와 고전물리학의 방법의 문제

모든 분과학문의 정초토대인 형식존재론의 근본원리들은 분과학문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중요한 함축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을 형식논리학의 근본법칙들을 예로 들어 검토해보자. 형식논리학의 근본법칙들, 예를 들면 “모든 A가 B이고, 모든 B가 C이면 모든 A는 C이다”라는 법칙은 일단은 순수형식논리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칙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순수이론적인 법칙이다. 이처럼 형식논리학의 근본법칙들이 순수이론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형식논리학은 순수이론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논리학이 단순히 순수이론적인 학문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순수이론적인 학문으로서의 형식논리학은 동시에 학문의 “기술론”(eine Kunstlehre)(Husserl 1975, 42), 다시 말해 학문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방법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형식논리학이 순수논리적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형식논리적인 법칙을 발견함을 목표로 할 뿐 아니라, 이처럼 발견된 순수논리적인 법칙이 모든 분과학문에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형식논리학을 통해 “모든 A가 B이고, 모든 B가 C이면 모든 A는 C이다”라는 형식논리학적 법칙이 밝혀졌을 경우 그 어떤 학문 영역에 종사하는 학자들 간에 형식논리학이 제시해주는 방법적 규칙에 따라 “모든 A는 C이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이러한 형식논리적 법칙뿐 아니라, 모든 여타의 형식논리적 법칙, 더 나아가 모든 여타의 형식적 존재론적 법칙들도 분과학문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적 규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순수이론적인 학문으로서의 형식존재론이 동시에 모든 분과학문이 준수해야 할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술론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식존재론의 탐구대상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우선 형식존재론이 탐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름 아닌 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식존재론이 탐구대상으로 삼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형식존재론의 탐구대상이 실제로 모든 대상에 공통적인 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우리는 앞서 살펴본 “모든 A가 B이고, 모든 B가 C이면 모든 A는 C이다”라는 형식논리학의 법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논리학의 법칙은 우선 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이러한 형식논리학의 법칙에 위배될 경우 그것은 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대상의 지위를 상실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식존재론의 탐구대상이 다름 아닌 모든 대상의 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대상을 탐구할 경우에도 이러한 본질적 속성에 따라서 탐구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대상의 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은 그 대상을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모든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규범”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대상의 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을 탐구하는 형식적 존재론이 모든 분과학문이 준수해야 할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줄 수 있는 기술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형식존재론이 모든 학문의 기술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모든 학문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의 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을 탐구하는 학이기 때문이다.

기술론으로서의 형식존재론은 어떤 특정의 분과학문에만 고유한 구체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이 아니라, 모든 분과학문 일반에 공통적인 형식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학이다. 그 이유는 형식존재론이 탐구대상으로 삼는 본질적 속성이 어떤 특정한 일군의 대상에만 고유하며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상한 후에 얻어질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순수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본 바, “모든 A가 B이고, 모든 B가 C이면 모든 A는 C이다”라는 논리법칙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는 대상 혹은 대상들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 순수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논리법칙은 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틀과 관련된 본질적인 속성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술론으로서의 형식존재론은 모든 분과학문에 공통적인 형식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줄 수 있다.

기술론으로서의 형식적 존재론은 분과학문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 나름대로 중요한 함축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법론으로서의 형식존재론이 분과학문의

방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나름대로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으로서의 형식존재론은 어떤 특정의 분과학문이 해당영역의 사태를 해명하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그 분과학문에만 고유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법론으로서의 형식적 존재론은 모든 학문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극히 형식적인 방법적 규칙들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형식적인 방법적 규칙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방법적 규칙에 대한 의식적인 학습이 없더라도 상식인이라면 대부분 그러한 형식적인 방법적 규칙을 올바르게 활용하면서 진리를 탐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역적 존재론적 정초와 고전물리학의 방법의 문제

형식적 존재론적 정초의 문제와는 달리 영역적 존재론적 정초의 문제는 고전물리학의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함축을 가지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특정의 분과학문이 자신에게 할당된 사태 영역을 올바르게 해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분과학문의 영역적 존재론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분과학문의 영역적 존재론이 탐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다른 아닌 그 분과학문이 다루는 대상들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역적 존재론이 탐구대상으로 삼는 본질적 속성은 그 영역에 속해있는 대상들이 공유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며, 따라서 그것은 대상 영역이 바깥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영역적 존재론이 탐구대상으로 삼는 본질적 속성은 내용적인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형식존재론의 탐구대상인 형식적 본질과 구별된다.

이처럼 영역적 존재론이 특정의 대상 영역에 고유한 구체적인 본질적 속성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이 대상 영역을 탐구하는 분과학문이 그 대상 영역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다. 마치 형식존재론이 제시하는 형식적인 본질적 속성에 토대를 둔 형식적인 방법적 규칙에 따라서 경험과학으로서의 분과학문이 대상을 탐구해야만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상에 대한 올바른 탐구가 가능하듯이 영역적 존재론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다양한 본질적 속성들에 토대를 둔, 내용을 지닌 구체적인 방법적 규칙에 따라서 경험과학으로서의 분과학문이 대상을 탐구해야만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상에 대한 올바른 탐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식적 존재론이 분과학문이 따라야 할 형식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주는 형식적 기술론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영역적 존재론은 분과학문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주는 내용적 기술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앞서 어떤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란 다른 아닌 그 대상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수행할 경우 모든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규범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하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념들 I』에 나오는 다음의 구절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방법은 밖으로부터 어떤 한 영역에 ‘자의적으로’ 끌어다 놓은 것도, 끌어다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특정한 방법은 [...] 한 영역과 그 영역의 일반적 구조들의 근본적 유형에서 유래하는 근본규범이다.”(Husserl 1976, 161)

이 인용문은 영역적 존재론과 구체적 기술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우리는 이 인용문에서 “한 영역과 그 영역의 일반적 구조들의 근본적 유형”이 다른 아닌 영역적 존재론이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본질적 속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인용문에 나타나 있듯이 어떤 영역에 고유한 이러한 본질적 속성은 바로 그 영역에 속한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근본규범이 유래하는 원천인데, 바로 이러한 근본규범이 다른 아닌 어떤 대상 영역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위한 “특정한 방법”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상 영역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위한 근본규범

으로서의 “특정한 방법”은 대상 영역이 바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어떤 경험과학도 자신에게 할당된 어떤 특정한 대상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분야로부터 “자의적으로” 연구 방법을 차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이 고전물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 어떤 함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은 우리에게 모든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본질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첫째, 앞서 고전물리학의 근본전제중의 하나인 절대공간, 절대시간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고전 물리학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 중의 하나는 그것이 수학적 수단을 통해 객관적이며 일의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데 있다. 그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경우 그것이 수학적 수단을 통해 일의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일 경우 그것은 결코 고전물리학의 대상이라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뉴턴의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대상의 본질적 속성은 그것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뿐 아니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학적 수단을 통해 일의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 공간과 객관적 시간은 뉴턴의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이 뉴턴의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대상이 공유하는 본질적인 속성이라 함은 뉴턴의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대상은 이러한 의미의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어떤 대상도 이러한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대상도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 가면서 경험하는 대상은 뉴턴적인 의미의 객관적 시간과 객관적 공간이 아니라, 주관성 혹은 상호주관성을 특징으로 하는 생활세계적 시간과 생활세계적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아니다. 더 나아가 역사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역사적 대상 역시 뉴턴적인 의미의 객관적 시간 및 객관적 공간과는 구별되는 역사적 시간 및 역사적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뉴턴의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아니다. 뉴턴의 물리학의 근본전제인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의 예가 보여주듯이 뉴턴의 물리학의 대상은 시간, 공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수학적 수단을 통해 객관적이며 일의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학적 수단을 통해 객관적이며 일의적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들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뉴턴의 고전물리학은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이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대상에 대한 탐구를 수행한다. 따라서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을 벗어나 있을 경우 그 어떤 대상도 고전물리학의 탐구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수학적 대상은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없고 결과도 될 수 없다. ‘2’라는 수 혹은 ‘2 더하기 3은 5다’라는 수학적 사실 등이 어떤 물리적 사건, 예를 들면 어떤 당구공이 굴러가는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없고 결과도 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당구공이 굴러가는 사건의 원인뿐 아니라 그러한 사건의 결과 역시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사건이지 이러한 연관을 벗어난 수 혹은 수학적 사실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을 벗어나 있는 수학적 대상이 고전물리학의 탐구대상이 될 수 없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고전물리학의 탐구대상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예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대상이다. 예를 들어 백성공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일곱 난쟁이가 위기에 처한 백설 공주를 구하는 사건은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 속에서 존재하는 당구공이 굴러가는 사건의 원인도 될 수 없고 결과도 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은 고전물리학의 탐구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듯이 고전물리학의 탐구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모든 대상은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 속에서 존재해야 하며 그

러한 한에서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고전물리학적 대상이 공유하는 이러한 두 가지 본질적 속성은 고전물리학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전물리학의 연구 방법의 구성 요소는 1) 수리화의 방법, 2) 인과적 설명의 방법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¹⁾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전물리학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적 요소는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적 요소는 고전물리학의 우연적 속성이 아니라 본질적 속성, 말하자면 고전물리학을 고전물리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방법적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고전물리학은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뿐 아니라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고전물리학이 수학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리물리학이라는 형태로 전개된다. 그런데 이처럼 고전물리학이 수리물리학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모든 물리학적 대상이 수학적 수단을 통해 객관적이며 일의적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전물리학이 인류의 역사에서 수리물리학의 형태로 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물리적 자연에 관한 체계적인 진술체계로서의 물리학이 필연적으로 수리물리학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어왔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물리학은 근대적인 의미의 수리물리학의 형태로 전개되지 않았으며 물리학이 수리물리학으로 전개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 불과 몇 백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둘째, 고전물리학은 물리적 대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인과적 분석방법을 택하면서 물리적 사건 사이의 자연인과적 연관을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이 경우 자연인과적 분석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물리학적 분석방법을 자연인과적 분석방법이라 부를 경우 자연인과라는 표현은 고전물리학이 분석하고자 하는 인과관계가 다양한 유형의 인과관계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의 인과관계에 불과함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이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이란 “그 무엇의 출발점”을 뜻하지만 원인이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Aristoteles 2003, 1013a-b) 그의 유명한 4원인설이 알려주듯이 그는 “원인”이라는 개념이 4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그 4가지란 그 무엇의 형상적 출처로서의 원인(형상인), 질료적 출처로서의 원인(질료인), 목적과 관련된 출처로서의 원인(목적인), 그 무엇이 생겨나게 된 힘으로서의 원인(작용인)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4가지 원인 중에서 고전물리학이 일차적으로 해명하고자 시도하는 원인은 다름 아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힘으로서의 원인, 다시 말해 작용인이며 바로 우리가 자연적 인과관계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작용인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전물리학은 물리적 대상과 관련해서 주로 자연적 인과관계를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고전물리학이 이처럼 주로 자연적 인과관계를 다루게 된 배경에는 모든 고전물리학적 대상은 자연적 인과관계의 연관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고유한 전제가 숨어있는 것이다.

3)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와 고전물리학의 방법의 문제

1)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고전물리학은 이러한 두 가지 방법적 요소 이외에도 세 번째의 방법적 요소, 즉 관찰 및 통제된 실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고전물리학이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뒤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것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의 문제 역시 분과학문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분과학문의 탐구대상이 구성되는 방식을 반성적으로 탐구한다. 말하자면 초월론적 현상학은 분과학문의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분과학문의 방법 문제에 대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분과학문의 대상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방식이 탐구되며, 이처럼 대상이 경험되는 방식에 대한 탐구는 해당 대상이 연구될 수 있는 방법의 문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초월론적 현상학이 고전물리학의 구체적인 방법적 토대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고전물리학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고전물리학적 대상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본질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모든 고전물리학적 대상이 넓은 의미에서 외적 감각을 토대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고전물리학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은 외적 감각을 통해서 주어질 수 없는 대상은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라는 수학적 대상, ‘2 더하기 3은 5다’라는 수학적 사실 등은 외적 감각을 토대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직관능력을 토대로 경험되는 대상이므로 그것들은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감각작용, 지각작용, 판단작용, 의지작용, 정서작용 등 다양한 유형의 의식활동은 외적 감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적 감각 혹은 반성작용을 통해 경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혼활동 역시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외적 감각을 통해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물리학적 대상이 공유하는 본질적 속성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고전물리학적 대상이 공유하는 이러한 본질적 속성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 즉 초월론적 구성적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앞서 살펴본 바,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을 토대로 드러나는 본질과 구별해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초월론적 구성적 본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고전물리학의 대상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를 통해 드러나는 고전물리학의 초월론적 구성적 본질은 고전물리학이 사용해야 할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잘 알려져 있듯이 고전물리학은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관찰 및 통제된 실험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고전물리학이 관찰 및 실험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전물리학적 대상의 초월론적 구성적 본질이 “감각”을 토대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감각을 토대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대상도 고전물리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고전물리학은 자신의 탐구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경험될 수 없는 일체의 것들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떤 유형의 판단도 내리지 않으면서 감각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주어질 수 없는 것들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떤 유형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 작업을 판단중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토대로 감각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작업을 나름의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이러한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을 여타의 다른 유형의 판단중지 및 현상학적 환원과 구별해 물리학적 판단중지 및 물리학적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실제로 후설이 물리학적 탐구의 가능성 문제를 다루면서 물리학적 연구가 오직 추상작업을 토대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추상작업을 일종의 판단중지라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Husserl 1962, 255)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물리학적 판단중지 및 물리학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감각을 토대로 경험될 수 있는 대상들만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한 방법이 다른 아닌 관찰과 통제된 실험의 방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감각을 토대로 한 경험”이 다른 아닌 관찰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할 경우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찰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통제된 실험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형식적 존재론, 영역적 존재론, 초월론적 현상학이 고전물리학의 방법에

대해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형식적 존재론은 고전물리학의 방법의 형식적 측면과 관련하여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고전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과 초월론적 현상학은 고전물리학의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현상학적 체험연구와 정초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양한 차원의 학문들이 어떻게 다양한 정초연관 속에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정초연관이 다양한 차원의 학문의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뿐 아니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을 출발점으로 삼아서도 다양한 차원의 학문들이 어떻게 다양한 정초연관 속에서 존재하며 그러한 다양한 정초연관이 다양한 차원의 학문의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하는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앞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의 경우와는 달리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의 경우 정초연관을 해명하는 작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이 이미 다방면에 걸쳐 정립되어 확고한 학문분과로 자리잡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은 이제 막 학문분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차원의 학문들이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들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양한 유형의 학문들이 어떤 정초연관 속에서 존재하는지 논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2)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의 경우에도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의 구별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용과학은 특정한 실용적 목표를 위해서 탐구되는 학문이며 순수과학은 실용적 목표와 무관하게 순수이론적인 관심에서 탐구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학문의 경우에도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순수경험과학은 응용경험과학을 정초해 주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의 경우에도 응용경험과학의 정초토대인 순수경험과학 역시 나름의 영역적 존재론을 정초토대로 해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다양한 유형의 순수경험과학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경험과학의 정초토대인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이 그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경험과학의 토대인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과 다르리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경험과학의 정초토대인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 이 모든 영역적 존재론을 포괄하는 보다 더 일반적인 영역적 존재론은 존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는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경험과학 및 이러한 과학의 정초토대인 영역적 존재론은 다시 형식적 존재론에 의해 정초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순수경험과학 및 영역적 존재론 역시 그것이 학문으로 정초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식적 존재론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형식적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경우 형식적 존재론이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 형식적 존재론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유형의 학문이 학문으로서 정립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식적 존재론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 점에 있

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경험과학과 그러한 과학의 정초토대인 영역적 존재론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학문의 형식적 존재론은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형식적 존재론과 동일한 것이다.

5) 앞서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 일반, 그러한 과학의 정초토대인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 형식적 존재론 등과 관련해 이러한 학문의 정체를 그 구성적 원천으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에 대해 초월론적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의 정체를 그 구성적 원천에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경험과학 및 그의 정초토대인 영역적 존재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학문들의 정체를 그의 구성적 원천으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에 대해 그들이 다루는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며 구성되는지 검토하면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를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6)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에서 출발해 이러한 학문들 및 그들의 정초토대가 되는 다양한 차원의 학문들을 포괄하는 현대학문의 나무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해할 수 있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학문의 나무는 형이상학이라는 하나의 뿌리, 자연학이라는 하나의 동치, 그리고 이러한 동치로 뻗어나간 기계학, 의학, 도덕학을 비롯한 응용과학이라는 가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카르트의 학문의 나무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학문의 나무는 우선 초월론적 현상학 및 형식적 존재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뿌리에 토대를 두고 커다란 두 개의 동치가 뻗어나가는데, i)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경험과학의 정초토대인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과 ii)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순수경험과학의 정초토대인 다양한 유형의 영역적 존재론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커다란 동치로부터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경험과학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경험과학이 뻗어나간다.

물론 우리가 그려본 현대학문의 나무가 현실적인 현대학문의 나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경험과학이 아직 확고하게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려본 현대학문의 나무는 현대학문의 현실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담고 있는 나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과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경험과학이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학문의 나무는 우리가 그려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양적 학문의 경우 1) 관찰 및 통제된 실험의 방법, 2) 수리화의 방법, 3)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 등 표준화된 양적 연구 방법이 통용되고 있다. 물론 이처럼 표준화된 방법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혁명기 이후 수 백 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양적학문의 경우와는 달리 질적학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질적학문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그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현재의 논의 수준은 과학혁명기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표준화된 질적 연구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철학적 정초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절을 바꾸어 사실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예로 들어 그의 철학적 정초의 문제를 살펴 보면서 그의 방법에 대해 검토해보자.

4.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철학적 정초와 그 방법의 문제

모든 경험과학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실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 역시 형식존재론

적 정초, 영역적 존재론적 정초,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 등을 필요로 한다.²⁾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구체적이며 내용적인 방법의 문제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영역적 존재론적 정초와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이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영역적 존재론은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이며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이 알려주는 체험의 몇 가지 본질적인 속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실적인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은 무엇이며 그러한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연구를 토대로 우리가 다양한 유형의 체험을 경험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관련된 또 다른 방법적 규칙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영역적 존재론적 정초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정초가 저 체험연구의 방법에 대해 어떤 함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1)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정초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방법

앞서 우리는 물리학의 영역적 존재론이 물리학의 방법에 대해 지니는 함축을 살펴보았다. 물리학이 설명하고자하는 물리학적 대상들이 모두 자연인과적 연관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인과성 및 자연인과적 연관은 물리학적 대상들의 영역적 본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인과성 및 자연인과적 연관이 물리학적 대상들의 영역적 본질이기 때문에 물리학적 대상들을 경험적 사실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물리학은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대상 영역의 영역적 본질은 그 대상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적 지침을 제공해 주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사실적으로 주어지는 체험을 연구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실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체험들에 공통적인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실적인 체험이 공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은 지향성이다. 그런데 모든 사실적인 체험의 본질적인 속성이 지향성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체험을 사실적인 체험으로서 다루는 모든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사실적인 체험들을 “지향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해야 한다.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사실적 체험들을 “지향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함은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지향적 해명의 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뜻한다.

이처럼 “지향적 해명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물리학을 비롯한 자연과학과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구별된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과 지향적 해명의 방법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인과적 설명이란 보편적인 자연법칙을 토대로 개별적인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난 밤에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하나의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온이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관이 파열된다”는 일반법칙을 토대로 “지난 밤에 기온이 몇 도 이하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따라서 “지난 밤에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방식으로 지난 밤에 수도관이 파열된 현상을 설명한다. 물론 이 경우 자연법칙은 수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표현되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양적인 법칙이요 자연과학 역시 양적인 과학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인과적 설명을 위해서는 보편성을 지니는 자연법칙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지향성을 지니는 인간의 체험의 경우에는 이처럼 보편성을 지니는 사실적인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한 개별적인 체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체험의 경우 인간의 체험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질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처럼 체험의 다양한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다른 아닌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이다.

그러면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과는 구별되는 지향적 해명의 방법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

2)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경험과학적 연구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식존재론적 정초, 영역적 존재론적 정초,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철학적 정초 중에서 형식존재론적 정초는 모든 경험과학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형식존재론적 정초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우리는 경험적 차원의 체험연구의 방법과 관련해 형식존재론적 정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지향적 해명의 방법이 어떻게 사실적 체험의 본질적 구조로부터 도출되는가? 이제 이 점을 앞서 살펴본 여행 체험의 본질을 예로 하여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모든 여행의 본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로서 1. 체험의 주체, 2.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체험된 대상들, 3. 여행의 시간성, 4. 여행의 공간성, 5. 타인과의 관계, 6. 자기와의 관계, 7. 동기와 목적, 8. 변화와 전개과정, 9.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10. 주체의 가치평가, 11. 여행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사회성 및 역사성 등 11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여행 체험의 본질적 요소들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여행 체험에 대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에 대해 어떤 함축을 가지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물리학 등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양적 학문과는 달리 지향적 해명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 방법은 그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는 현상학의 근본 입장에서 유래한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런데 여행 체험의 경우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여행 체험은 앞서 살펴본 11가지 본질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에서 어떤 사실적인 여행 체험을 해명하기 위해 지향적 해명의 방법을 사용한다 함은 다음과 같이 11가지 관점에서 저 체험을 해명함을 뜻한다. 말하자면 물리학의 경우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을 통해 자연현상이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야 하듯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이 지향적 해명의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야 하는데, 지향적 해명은 다음과 같이 11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

(1) 체험의 주체

모든 여행 체험이 여행의 주체를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적인 체험으로서의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해명은 체험의 주체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연구보고서에는 여행이 주체로서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는지 우선 여행의 주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여행 주체의 특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한다.

(2)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체험된 대상

모든 여행 체험이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지향적 대상을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여행 주체가 경험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말하자면 여행 주체는 여행 중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경험과 더불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는지 등이 해명되어야 한다.

(3) 시간성

모든 여행 체험이 시간성을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여행 주체와 다양한 대상들의 시간성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시간성에 대한 해명은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그와 관련해 주체가 느끼는 시간성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 주체가 경험한 대상이 아주 흥미로워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을 받았는지, 아니면 대상이 너무 지루해서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간 느낌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해명 등을 포함한다.

(4) 공간성

모든 여행 체험이 공간성을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여행 주체와 다양한 대상들의 공간성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공간성에 대한 해명은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그와 관련해 주체가 느끼는 대상의 공간성의 성격은 어떠한지,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의 공간성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었는지 아니면 거칠고 딱딱한 느낌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해명 등을 포함한다.

(5) 타인과의 관계

모든 여행 체험이 타인과의 관계를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타인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한 동료여행자(들) 일수도 있고 여행자가 이탈리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들 모두 여행 주체의 이탈리아 여행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예

를 들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동료여행자와의 관계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떠하였고 여행을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여행이 중간 지점, 종점 등에 이르렀을 때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해명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여행 중에 만난 타인들과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해명을 포함할 수도 있다.

(6) 자기와의 관계

모든 여행 체험이 자기와의 관계를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 해명은 여행자가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인격적 자아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여행을 시작하기 이전과 비교해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의 인격적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더 높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에 대한 해명을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 해명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계, 예를 들어 자신의 신체 상태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여행을 마친 후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등에 대한 해명을 포함할 수 있다.

(7) 동기와 목적

모든 여행 체험이 동기와 목적을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여행자가 어떤 동기로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목표로 한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여행 주체에 따라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이처럼 다양한 여행 주체의 여행 동기와 목적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8) 변화와 전개과정

모든 여행 체험이 변화와 전개과정을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바로 이처럼 부단히 변화하는 여행 과정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여행 과정에 대한 해명은 어떤 경로를 통해 여행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뿐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여행 주체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의 변화과정에 대한 해명도 포함한다.

(9)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모든 여행 체험이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를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이 여행이 주체의 삶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또 그것이 주체의 삶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10) 주체의 가치평가

모든 여행 체험이 주체의 가치평가를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이 여행의 주체가 이 여행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이처럼 가치평가 역시 지향적 해명의 중요한 하나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자연인과적 설명의 경우 가치평가가 들어설 여지가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지향적 해명의 방법은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1) 여행의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사회성 및 역사성

모든 여행 체험이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사회성 및 역사성을 하나의 본질적 요소로 가지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은 그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 지향적 해명이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맥락에 대한 해명을 포함한다고 하는 점에서 지향적 해명의 방법은 그러한 맥락을 전적으로 도외시하는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을 예로 들어 여행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며 그러한 속성이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의 방법에 대해 어떤 함축을 지니는지 살펴보면서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의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1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11개 항목 각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며 자세한 논의

가 필요할 것이며 그를 통해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지향적 해명의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수행되는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앞서 살펴본 11개의 항목을 모두 연구해야 할 필요는 없다. 11개의 항목 전체에 걸친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연구는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이처럼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가장 포괄적인 연구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무수히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관심에 따라 11개의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항목 또는 몇 가지 항목만 취사선택해서 그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11개의 항목들 각각도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것처럼 다양한 요소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 체험을 예로 들어 어떤 특정한 생활세계적 체험에 대한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연구가 그 체험에 대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한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사용해야 할 지향적 해명의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서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우리의 모든 생활세계적 체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체험에 대한 지향적 해명의 방법의 정체를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서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을 예로 들어 그를 해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11개의 본질적인 요소들, 즉 실존체를 살펴보았다. 물론 필자가 앞서 제시한 11가지의 실존체가 여행 체험의 본질적 속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지 하는 점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행 체험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분석이 꼭 이러한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점 역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 체험과 관련된 실존체를 11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러나 모든 유형의 생활세계적 체험이 이탈리아 여행 체험처럼 11개의 실존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체험 유형에 따라 실존체의 수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절대자와의 관계”, “내세에 대한 기대” 등은 종교적 체험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속성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종교적 체험의 핵심적인 실존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탈리아 여행 체험을 구성하는 실존체로 간주하지 않았다. 물론 종교적 체험은 앞서 이탈리아 여행 체험과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본 11개의 실존체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우리는 종교적 체험이 여행 체험보다 더 많은 실존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체험이 몇 개의 실존체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은 그 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본질적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셋째, 실존체의 수는 체험의 성격에 의존해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생활세계적 체험을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수동적인 체험과 능동적인 체험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³⁾ 바로 어떤 체험이 얼마나 많은 실존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은 그 체험이 얼마나 능동적인지 혹은 수동적인지 하는 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어떤 체험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그 체험을 하면서 주체의 의지적인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체험들을 능동성과 수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층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체험들을 1)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능동적인 층인 학문적 체험, 예술적 체험, 종교적 체험의 층, 2) 일상적인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의 층, 3) 다양한 감각적 체험의 층, 4) 꿈 등을 비롯한 무의식적인 체험의 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각각의 체험에 대해 사실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향적 해명의

3) 발생적 현상학 및 능동적 체험과 수동적 체험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남인(2013)의 6장을 참고할 것.

방법을 통해 이 각각의 층에 들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체험을 연구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앞서 살펴본 실존체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다 더 능동적인 체험이 보다 더 수동적인 체험보다 더 많은 실존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문적 체험과 감각적 체험을 비교해보면 학문적 체험과는 달리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감각적 체험은 자기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동기와 목적, 가치평가 등의 실존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2) 본질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적인 생활세계적 체험에 대한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토대로 사실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적 요소의 한 가지로서 자연인과적 설명의 방법과는 구별되는 지향적 해명의 방법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향적 해명의 방법만으로 사실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또 다른 방법적 요소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적 심리학적 체험들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물리학적 대상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연구가 물리학의 방법에 대해 지니는 함축을 살펴보았다. 물리학적 대상의 경험방식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물리학적 대상이 원칙적으로 외적지각을 통해 경험되기 때문에 물리학은 외적지각에 토대를 둔 관찰과 실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들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할 경우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위해 앞서 살펴본 방법들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논의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앞서 논의된 지향적 해명의 방법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1인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방법이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그런데 연구자가 1인일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경우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이 두 경우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위해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경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연구자가 자기 자신의 체험을 연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사람들은 체험연구라 하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른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체험연구의 존재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기존의 체험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유형의 체험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I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존의 현상학적 체험연구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연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가능하며,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여타의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위해 방법적인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우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경우에도 모든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그것의 유효 범위가 연구자 자신의 체험들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아론적 환원”(die egologische Reduktion)(Husserl 1965, 262)의 형태로 수행된다. 이러한 자아론적 환원의 형태로 수행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통하여 연구자는 체험류 속에서 존재하는 자신의 체험의 전체를 향해 시선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연구자가 자아론적 형태를 보이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그는 그를 통해 계시되는 자기 자신의 체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이란 체험류 속에서 존재하는 다

양한 체험들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반성이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의 토대 위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벗어나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반성과 구별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 역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연구자가 현재 시점에 자신에게 경험되는 체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가 주체에게 현재 시점에 현전의 양상에서 현출하는 체험에 대한 파악을 내적지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점에 주어지는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지각적인 심리학적 현상학적 반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이 단지 지각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주어지는 체험뿐 아니라, 과거의 체험에 대해서도 기억을 통해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경주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체험들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면서 그에 대해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처럼 기억 속에서 수행되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앞서 살펴본 지각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과 구별해 기억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나의 체험에 대해서도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제주도도 여행을 떠날 경우 나는 내일 있을 제주도 여행을 예상하면서 내일 내가 경험할 제주도에 대한 체험들을 미리 떠올리면서 그에 대해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과 구별해 이처럼 예상 속에서 수행되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예기적인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체험이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나의 기억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너머에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의 유아시절의 체험에 대해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모태 속에서 있었던 나의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현재 시점에서 수동적인 양상으로 수행되는 나의 체험들 중에서 많은 것에 대해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 꿈을 비롯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많은 체험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이처럼 나의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체험들에 대해 나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이처럼 연구자가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체험을 연구자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처럼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체험을 해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해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말하자면 연구자는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과거의 체험, 수동적인 체험 등을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망각 속으로 빠져버린 나의 어린 시절의 체험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체험과 관련해 나의 부모를 비롯해 타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통해 그에 대해 재구성할 수 있다.

(2)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를 경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를 경우에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연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대상인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으로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같은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를 경우 사용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같을 경우 사용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환원과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 이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해명함을 목표로 삼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를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목표로 삼는 것은 타인의 체험으로 연구자의 시선을 집중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환원을 앞서 살펴본 “자

아론적 환원”과 구별해 “상호주관적 환원”(Husserl 1968, 262)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상호주관적 환원으로서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연구자는 타인의 체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은 연구자 자신의 체험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지 타인의 체험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해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해석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타인의 체험에 대한 해석은 타인의 표정, 동작, 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표현을 해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타인이 남긴 예술작품, 글 등을 해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를 경우 수행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상호주관적 환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과 해석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 사용되는 해석의 방법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시대에 살고 있을 경우 양자 사이에 대면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사용되는 해석의 방법은 서로 다르다. 양자 사이의 대면이 가능할 경우 연구자는 주로 연구참여자의 표정, 동작, 말 등을 토대로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해석하게 되며 양자 사이의 대면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자는 주로 연구참여자가 남긴 글 등을 토대로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해석한다.

그 이외에도 우리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해석하는 경우 1)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사이에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3)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동일한 사회 내지 문화권에 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으로 나누어 이 각각의 경우 해석이 각기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으로서 1) 자아론적 환원의 형태와 상호주관적 환원의 형태로 수행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의 방법, 2) 지각적 형태, 기억적 형태, 예기적 형태 등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반성의 방법, 3) 다양한 유형의 해석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체험연구의 의의

지금까지 우리는 1)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경우와 2)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두 번째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의 연구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연구가 연구자 자신이 주관적인 체험을 단순히 보고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아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체험연구는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자 자신의 체험에 대한 해명과 타인의 체험에 대한 해석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연구자는 자신이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와 유사한 타인의 체험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통증도 체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통증 체험도 이해할 수 없으며 산고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산고를 대하면서 그 사람의 산고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방법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이해가 타인의 체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에 대한 이해가 생생하고 구체적일수록 타인의 체험에 대한 이해 역시 그만큼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아론적 환원의 형태로 수행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반성은 상호주관적 환원의 형태로 수행되는 사실적 심리학적 현상학적 환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인의 체험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해석을

위해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유아론적 형태로 수행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하고 그를 토대로 자신의 체험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반성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한 선행 조건은 연구자가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체험을 구체적으로 체험해보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연구자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키워가면서 타인의 체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볼 때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 결과가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지각의 형태로 수행되는 사실적 심리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와는 타인의 신체적 표현을 매개로 수행되는 해석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에 비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닌다. 물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들이 동일한 수준의 명증성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다른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명증성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유형의 체험연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체험연구에서 지각적 유형, 기억적 유형, 예기적 유형의 반성의 방법이 사용되며 다양한 유형의 해석의 방법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는 해석의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니며, 또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 중에서도 지각적 유형의 반성적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가 기억적 유형이나 예기적 유형의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닌다.

셋째,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유형의 연구가 그렇지 않은 유형의 연구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체험연구에 대해 그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단순한 개인적인 보고를 넘어설 수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단순히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1인이 아닌 다수의 집단적인 연구로 바꾸어 그것이 단지 주관적인 명증성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명증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체험을 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각자 자신들의 체험들에 대해 보고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면서 그의 정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머물지 않고 어느 정도 상호주관성 내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이러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5.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실제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모든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을 보자면 1) 연구의 목표설정을 비롯한 연구준비단계, 2) 자료수집단계, 3) 자료분석단계, 4) 자료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의 도출단계, 5) 연구보고서 작성단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들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체험연구가 수행되는지 살펴보자.

1) 연구준비단계와 연구전체의 조감도 마련

모든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에서도 연구준비단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 단추가 올바르게 꿰어지지 않을 경우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듯이 연구준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 연구 전체가 혼선에 빠지면서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준비단계는 장차 수행될 연구전체의 조감도를 마련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조감도가 연구준비단계가 끝난 후 수행되는 일련의 연구과정 전체를 이끌어준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준비단계에서 연구주제의 설정, 자료수집의 방법, 자료분석의 방법, 연구결과보고서작성 등 연구전체와 관련된 조감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준비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의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일이다. 그 어떤 연구도 전체 연구를 주도하는 목표가 없이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물론 연구의 목표는 이론내재적인 관점에서 정립될 수도 있으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는 만큼 이론적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현실적합성을 고려하면서 연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일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

둘째, 연구 목표와 더불어 설정되어야 할 것은 연구주제이다. 연구주제를 설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주제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일이다. 연구주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막연하게 설정될 경우 연구자료수집, 자료분석 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연구가 난항을 겪고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주체험을 연구할 경우 우리는 “음주체험에 대한 연구”, “대학신입생들의 음주체험연구”, “대학신입생들의 입학 후 1개월 사이의 음주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처럼 연구주제를 “음주체험에 대한 연구”라고 설정할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세 번째 경우처럼 연구주제를 “대학신입생들의 입학 후 1개월 사이의 음주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라고 설정할 경우 연구주제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대상의 설정, 연구자료의 수집 등 연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분명한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예의 경우처럼 연구주제를 설정함에 있어 “현상학적”이라고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는 일도 중요하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주제의 설정과 더불어 어떤 유형의 연구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신입생들의 음주체험과 관련된 연구자료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대학신입생들의 음주체험에 대한 일간지 기사, 음주체험을 한 대학신입생들에 대한 인터뷰기사들, 음주체험을 한 대학신입생들의 일기, 또는 음주체험을 한 대학신입생들을 직접 인터뷰한 자료 등이 모두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료들을 사용하여 연구할지에 대한 조감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일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직접 심층면접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위한 문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면접문항은 체계적이며 상세해야 하며 막연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대학신입생들의 음주체험을 연구하고자 할 경우 “대학에 입학한 후 음주체험이 있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방식으로 문항이 막연할 경우 연구체험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 줄 몰라 당황해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자는 필요한 연구자료를 올바르게 수집할 수 없을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이 설정한 연구 목표에 따라 연구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범주에 따라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문항의 범주들은 나중에 자료를 분석하여 주제, 주제묶음 등을 만들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료분석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제, 주제묶음 등이 연구준비단계에서 이미 잉태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자료의 수집

연구준비가 완료되면 연구자는 연구자료의 수집에 들어간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위한 연구자료는 무수히 많다. 대학신입생들의 음주체험에 대한 일간지 기사, 음주체험을 한 대학신입생들에 대한 인터뷰기사들, 음주체험을 한 대학신입생들의 일기, 또는 음주체험을 한 대학신입생들을 직접 인터뷰한 자료 등이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자료들 중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 수집하기 어렵고 또 주의를 기울여 수집해야 하는 자료는 직접적인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심층면접을 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자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으로서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연구자 자신의 체험이 아니라, 연구참여자의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행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상호주관적 환원의 형태로 수행된다. 그리고 이처럼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연구자는 미리 준비한 문항에 따라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연구참여자의 대답을 필사하거나 녹음한다. 물론 연구자는 자신의 학적 관심에 따라 질문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수집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미리 준비한 문항 이외의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면서 추가된 문항에 따라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연구자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선입견을 담아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앞서 정해놓은 결론 쪽으로 유도하면서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해서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선입견을 배제해야 하는데, 이처럼 선입견을 배제하는 작업 역시 일종의 현상학적 환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포괄적인 형태의 것과 구체적인 형태의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환원은 구체적인 형태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다.

이처럼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리 문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토대로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점과 관련해 자료수집을 위해 이처럼 미리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는 현상학의 근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미리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일은, 그것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 전혀 현상학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뿐더러 불가피한 방법적 절차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 상태에서 문항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러한 문항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을 조망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 중의 하나를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현상학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그것을 조망하기 위한 관점들이 없이 수행될 경우 그것은 방향감을 상실하면서 비체계적인 연구로 전락할 위험을 안게 된다. 물론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자연과학적 태도에서, 문항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문항들을 토대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면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그렇게 수집된 연구자료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자료가 아니라 자연과학적 연구를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료수집은 현상학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자료의 분석

앞서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것이든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포괄적인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인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료분석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는 일은 자료분석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할 뿐이다. 수집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다양한 유형의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분석되는 자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형태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자료들이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입견으로 작동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형태의 사실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두 번째 환원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자료가 주는 선입견으로부터 해방되어 연구하고자 하는 자료에 몰두하면서 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연구자료는 일차적으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대답들을 기록해놓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문장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연구자는 그것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료를 이해하기 위해 문헌해석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자료는 연구참여자의 대답을 적어 놓은 문장들뿐 아니라, 심층면

접의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보였던 표정, 동작 등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표정, 동작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정, 동작 등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 이외에 다른 유형의 자료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신문기사, 일기, 전기 등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해석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

4) 연구결과의 도출

연구자는 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연구대상인 체험의 다양한 내용들을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연구대상인 체험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적인 내용이 몇 개의 중요한 부분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이 부분적인 내용들 각각은 다시 더 작은 부분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적인 내용들 각각도 더 작은 부분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부분적인 내용들은 흔히 기존의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 범주, 주제묶음, 주제, 의미단위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다. 말하자면 우리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대상인 체험의 통일적인 내용 내지 의미를 범주, 주제묶음, 주제, 의미단위 등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리는 반 매년의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인 통일적인 내용 또는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몇 개의 문단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의 정리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인 통일적인 내용과 서로 다른 여러 차원에서 그것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적인 내용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통일적인 내용이 언제나 부분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귀납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일적인 내용이 부분적인 내용들의 종합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통일적인 전체적인 내용과 부분적인 내용들은 해석학적 순환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말하자면 통일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부분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도움을 주고 거꾸로 부분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통일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면서 통일적인 내용과 부분적인 내용들이 동시에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는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통일적인 내용과 다차원적인 부분적인 내용들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그런데 전체적인 통일적인 내용의 구성은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은 전체적인 통일적인 내용의 구성이 완성되는 시점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통일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은 연구결과를 정리하기 훨씬 이전의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바로 연구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연구준비단계에서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문항들이 통일적인 의미가 구성되는 최초의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항들 각각은 연구결과로서의 전체적인 통일적인 의미를 이루는 다양한 범주들 각각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문항들 각각은 전체적인 통일적인 내용을 구성할 범주들 각각의 형식적인 틀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는 바가 없다. 범주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화되는 것은 자료분석이 끝나고 연구결과가 제시될 때이다. 연구준비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가 제시되는 중간 과정은 연구 초기 단계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빈 형식만을 지니고 있던 범주가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5)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수집과정, 자료분석과정, 결과도출과정 등에서 포괄적인 형태와 구체적인 형태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의 방법, 다양한 유형의 심리학적 현상학적 반성의 방법, 다양한 유형의 해석의 방법 등을 사용해야 한다. 연구자는 각 단계마다 수집되거나 분석되어야 할 자료들의 본

질적 성격을 고려하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사태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유형의 방법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점과 관련해 필자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서 상호주관적 검증의 과정을 지적하고자 한다. 상호주관적 검증은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상호주관적 검증은 우선 연구자료수집의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집한 자료가 연구참여자의 체험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불분명한 대목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그 내용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뿐 아니라,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연구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는 불분명한 대목이 있을 경우 연구참여자에게 질문을 제기하면서 불분명한 대목을 명료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상호검증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의 상호검증도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연구자가 다수일 경우 연구자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기탄없이 토론하고 불분명한 대목을 명료하게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상호검증을 수행하고 그를 토대로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더 높게 할 수도 있다. 앞서 우리는 연구자가 1인인 연구도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연구자가 1인일 경우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들과 각각도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는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6) 연구 보고서 작성

연구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취향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연구의 목표, 연구주제 및 대상, 자료수집절차 및 방법, 자료분석절차 및 방법, 연구결과, 결과에 대한 논의 등과 더불어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담을 수 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상학적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 점과 관련해 필자는 연구자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의 방법을 비롯해 앞서 논의된 다양한 유형의 방법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있다면 이 점과 관련해 아무런 어려움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점과 관련해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해온 연구를 되돌아보고 자신이 매 연구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보면서 그에 대해 진솔하게 기술하면 된다. 말하자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과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연구를 위하여 실제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이며 자율적으로 반성하면서 그에 대해 기술하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그 어떤 연구자도 자신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현상학적 방법을 기술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기존의 그 어떤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어떤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수행하였을 경우 실제로 어떤 연구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연구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현상학적 방법에 대한 기술과 관련해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을 되돌아보면서 그에 대해 진솔하게 기술하는 일이다.

둘째, 연구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 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구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기존의 체험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는 연구자에 따라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글쓰기 방식이 각기 다른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독자들이 그 연구결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논리적이며 명료한 형태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논리적이며 명료한 형태로 글을 쓰지 않을 경우 연구결과가 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결과가 논리적이고 명료할 뿐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뛰어나게 정리된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 매년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모든 현상학적 체험연구자가 문학적 글쓰기의 재능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학적 글쓰기가 현상학적 체험연구 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요소라 할 수도 없다.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객관성을 갖춰야 하며 상호주관적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결과는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우선 논리적이며 명료한 형태로 서술되어야 한다. 논리적이며 명료한 글쓰기는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며 따라서 모든 현상학적 체험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명료하며 논리적인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설계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여행 체험을 예로 들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연구가 “지향적 해명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논하고 거기에 이어 대학신입생의 음주체험을 예로 들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그것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돌아보면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 체험을 예로 들어 여행 체험의 본질적 요소들인 11개의 실존체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11개의 실존체는 이탈리아 여행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행을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측면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적인 경우 이러한 11개의 실존체 전체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구관심에 따라 11개의 실존체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그를 중심으로 체험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물론 이처럼 11개의 실존체 전체에 대해서 체험연구를 수행하든 또는 그 중의 일부를 선택해서 체험연구를 수행하든 구체적인 체험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자가 1인일 경우와 다수일 경우
2. 연구참여자가 1인일 경우와 다수일 경우
3. 성별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4. 지역, 사회, 국가 등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5. 시대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6. 연령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7. 직업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7. 수입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8. 인종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9. 종교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10.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따른 체험의 유형들

이처럼 다양한 관점에 따라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설계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관점들을 서로 조합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체험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 체험을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형태로 연구하면서 연령에 따른 차이와 직업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면서 연구를 설계할 수도 있고, 종교적 차이와 정치적 성향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연구를 설계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앞서 열거된 여러 가지 차이를 모두 고려하면서 연구를 설계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는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이탈리아 여행 체험에 대해서만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이외의 여행 체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고 여행 체험 이외의 무수히 많은 다른 체험들 각각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연구를 설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다.

7.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

우리는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에 대해 행했던 것과 유사한 고찰을 수행하면서 그의 방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철학적 정초와 방법의 문제를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 이유는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에 대한 고찰이 그 근본구도에 있어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방법에 대한 고찰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초월론적 현상학의 핵심적인 주제가 초월론적 주체에 의한 세계 및 대상의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는 세계 구성의 구조를 해명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세계 구성의 구조를 해명하는 문제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에서는 문제로서 제기되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구별된다.

둘째, 세계 구성의 구조 자체가 문제로 등장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어떤 하나의 체험이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주제가 될 경우 그것의 실존체의 수는 그 체험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주제가 될 경우의 실존체의 수와 동일하다. 말하자면 어떤 체험은 그것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주제가 될 경우 그것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의 주제가 될 경우 보다 실존체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주체가 스스로 구성한 세계라는 지평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실존체이다.

셋째, 따라서 “주체가 스스로 구성한 세계라는 지평을 가지고 있음”이라는 실존체를 제외하면 어떤 하나의 체험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가 될 경우와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될 경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존체의 수는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은 “주체가 스스로 구성한 세계를 가지고 있음”이라는 실존체를 제외할 경우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는 동일한 실존체를 중심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체험들과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체험들 사이에 평행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동일한 하나의 체험이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에서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는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체에 의한 세계 구성의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없을 경우 우리는 굳이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따로 수행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세계를 구성하는 기능 이외의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들이 가지고 있는 여타의 모든 기능들은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를 통해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굳이 이러한 여타의 기능들을 해명하기 위해 따로 사실적 초월론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II.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양적 연구와 구별하면서 질적 연구의 정체를 규정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오르지는 자연과학으로서의 계량적 심리학과 인문과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

학을 구별하면서 전자의 특징으로 양적 분석, 측정을 통한 양의 파악, 양을 통한 인과관계의 분석, 결정론적 반응들,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들, 연구대상으로부터 독립적인 관찰자 등을 제시하고 이와 구별되는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질적 분석, 의미의 파악, 의미의 해명, 지향적 반응들, 구현물을 매개로 해서 드러나는 본질적 현상, 참여적 관찰자 등을 제시한다.(Giorgi 1967) 그리고 콜레지는 실험심리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을 구별하면서 양자가 각각 방법적인 면에서는 실험의 방법과 기술의 방법을 사용하고, 연구 목표에 있어서는 인과적 분석과 체험의 정체확인을 겨냥하며, 사유방식에 있어서는 계산적 사유방식과 성찰적 사유방식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향하는 생활방식에 있어서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기술과 거주적 삶 및 이해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서로 대조하면서 지적하고 있다. (Colaizzi 1978, 69)⁴⁾ 그 이외에도 메리엄(S. B. Merriam)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대비시키면서 전자가 성질(quality), 본성(nature), 본질(essence) 등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는데 반해 후자는 양(quantity)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으며, 전자가 귀납적인(inductive) 분석방식을 택하는데 반해 후자는 연역적인(deductive) 분석방식을 택하는 등 모두 9가지 기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며 (Merriam 1998, 9), 덴진(N. K. Denzin)과 링컨(Y. S. Lincoln)은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개인의 관점을 취함(capturing the individual point of view), 일상적 삶의 구속요건들을 검토함(examining the constraints of everyday life), 풍부한 기술을 확보함(securing rich description) 등을 제시한다.(Denzin/Lincoln 2000, 8 이하)

비록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을 검토하면서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성격이 총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는 양적 연구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과 질적 연구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후자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어떻게 구별되며 그 중에서도 질적 연구의 특성이 무엇인지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우리는 우선 1절에서 양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규정될 수 있는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거기에 이어 2절에서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검토하면서 질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규정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3절에서 데카르트의 양적 연구 프로그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살펴볼 것이다. 거기에 이어 우리는 4절에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별하는 기준이 다름 아닌 태도라는 사실을 해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5절에서 질적 연구의 정체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질적 연구의 지평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해명할 것이다.

1. 데카르트의 양적 연구 프로그램

데카르트는 실체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자신의 형이상학적 논의를 전개한다. 그에 의하면 실체는 “존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Descartes 1985, 210)이다. 실체를 이처럼 정의할 경우 엄밀한 의미의 실체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존재할 수

4)	Traditional psychology	Phenomenological psychology
Method:	Experimentation	Description
Objective:	Causal Analysis	Identification
Thinking:	Calculative	Meditative
Life-style:	Technology	Dwelling-Understanding

있도록 도와주는 신 밖에 없다. 신 이외의 일체의 피조물은 창조주인 신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참다운 의미에서 실체라 불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 개념을 완화하면 창조된 것 중에서도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완화된 실체개념에 의하면 실체란 “존재하기 위해서 신 이외의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완화된 의미의 실체가 무한한 신과는 구별되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신을 무한실체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실체를 유한실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유한실체에는 정신과 물체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정신이거나 물체 중의 하나인데, 정신은 존재하기 위해서 물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체 역시 존재하기 위해서 정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 물체는 실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한실체이다.

그런데 이처럼 존재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실체 이외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일체의 것들은 바로 실체에 붙어서 존재한다. 우리는 우선 이 경우 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은 가장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이며 이러한 점에서 가장 완벽함과 전지전능함은 신이라는 무한실체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완벽함과 전지전능함 이외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붙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물체도 펼쳐져 있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펼쳐져 있음, 즉 연장은 물체라는 유한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연장 이외에 물체라는 유한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기, 형태,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더 나아가 정신의 경우 사유하지 않는 정신은 없으며 따라서 사유함은 정신이라는 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사유함은 표상함, 판단함, 의지함, 느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이러한 점에서 표상함, 판단함, 의지함, 느낌 등도 모두 정신이라는 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실체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실체에 붙어서 존재하면서 실체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체의 것들은 속성(attribute)이라 불린다. 실체는 다양한 속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무한실체인 신은 전지, 전능, 완전함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물체는 연장, 크기, 형태, 운동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니며, 정신은 사유함, 표상함, 판단함, 의지함 등 다양한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는 실체의 다양한 속성을 통하여 실체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그런데 유한실체의 경우 다양한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one principle attribute)(Descartes 1985a, 210)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연장이며 정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유이다. 이 가장 중요한 속성은 “실체의 본성과 본질을 구성하는 바, 실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one principle property)(Descartes 1985a, 210)으로서 모든 여타의 속성은 가장 중요한 이 속성에 의존해 있으며 이 속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물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연장이며 이 연장이 없이는 여타의 속성들, 즉 크기, 형태, 운동 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유이며 사유가 없이는 여타의 속성들, 즉 표상함, 판단함, 의지함 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실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과 구별되는 여타의 일체의 속성들을 “양태”(mode)라고 부른다. 연장이라는 속성 이외에 우리가 물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체의 속성들, 즉 크기, 형태, 운동 등은 물체의 양태이며, 사유라는 속성 이외에 우리가 정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체의 속성들, 예를 들어 표상함, 판단함, 의지함 등은 정신의 양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양태란 그를 통해 실체가 자신의 모습, 즉 양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 즉 변양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Descartes 1985a, 211) 예를 들어 정신은 구체적으로 표상, 판단, 의지, 감정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수 있으며 물체는 모양, 크기, 운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상함, 판단함, 의지함 등은 정신의 양태이며

모양, 크기, 운동 등은 물체의 양태이다.

양태가 그를 통해 실체가 자신의 모습, 즉 양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 즉 변양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실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양태가 될 수 없다. 실체로 실체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물체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연장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갈 수 없으며, 정신 역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사유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갈 수 없다. 사물은 그 자체가 연장이요 정신은 그 자체가 사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체는 모양, 크기, 운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갈 수 있으며, 정신 역시 표상함, 판단함, 의지함 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갈 수 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속성을 통해 실체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의 양태라 불릴 수 없다. 실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속성이라 불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양적 연구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데카르트의 경우 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우리는 물체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적인 속성으로서 “연장”을 제시했는데 데카르트는 바로 연장을 양과 동일시하고 있다.(Descartes 1985a, 226) 데카르트에 의하면 물체의 본질적인 성격인 연장이란 펼쳐져 있음을 의미하며 펼쳐져 있음은 그 자체상 양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연장과 양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연장 혹은 양”(Descartes 1985a, 226)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해에 의하면 양은 연장실체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속성이 된다. 이처럼 데카르트의 경우에 양이 연장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만 그는 양이라는 개념보다 연장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이 점과 관련해 그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린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양을 연장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심한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Descartes 1985b, 62)

그런데 바로 연장으로 이해된 이러한 양이 다름 아닌 양적 연구의 근본범주인 양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연장, 즉 양은 모든 물체들의 밑에 있는 “자족적인 질료”(Descartes 1985a, 230)를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이 경우 모든 물체들의 근저에 놓여 있는 질료를 그 어떤 구체적인 사물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모든 물체들의 근저에 놓인 질료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주전자가 하나 있다고 하자. 이 주전자에 물이 가득 들어있을 경우 우리는 이 주전자가 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며 이처럼 물로 가득 찬 주전자와 비교해 이 주전자에 물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을 경우 이 주전자는 “비어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어있다”고 말하는 주전자 역시 실제로는 비어있는 주전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주전자는 물 대신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이 주전자에 들어있는 공기를 모두 제거할 경우 과연 이 주전자를 비어있는 주전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이 주전자에 공기마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전자를 빈 주전자라 부르며 이 주전자 속의 공간을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이라고 부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비록 이 주전자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긴 하지만 이 주전자 속의 공간은 절대적인 의미의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능력을 통해서 지각될 수 없는 그 어떤 재료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처럼 감각을 통해서 지각될 수 없는 재료가 다름 아닌 질료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질료는 단지 이 주전자 속에 있는 공간뿐 아니라 이 주전자 바깥에 있는 모든 공간에도 두루 두루 퍼져 있는 것으로서 일체의 구체적인 물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질료의 근본적인 속성은 그것이 우주 공간 전체에 두루 두루 균질적으로 퍼져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우주 공간 전체를 통해 단 "한 가지 유형의 질료".(Descartes 1985a, 232)가 존재할 뿐이며 따라서 "천상의 질료는 지구의 질료와 다르지 않다". (Descartes 1985a, 232) 그런데 이러한 질료의 본성은 그것이 단지 무한한 우주 공간을 통해 한결같이 펼쳐져 있다는데, 즉 연장을 지니고 있다는데 있으며 이처럼 질료가 연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양"을 지니고 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신은 세계를 창조하면서 물체의 세계를 이처럼 수학적 수단을 통해서 일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양을 지닌 질료로 창조하고 이러한 질료를 토대로 다양한 물체들을 창조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우주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 따르면 우주는 그 본성에 있어 서로 다른 항성계, 행성계, 태양계, 월하계, 지구계 등으로 구별되며 지구계 역시 그 본성에 있어 서로 다른 불의 영역, 공기의 영역, 물의 영역, 흙의 영역 등으로 구별된다.(Aristoteles 1960) 그러나 데카르트는 우주가 그 본성상 서로 다른 다양한 공간 혹은 영역으로 구별된다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거부하고 우주 전체는 동일한 단 하나의 질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세계관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데카르트의 세계관에 따르면 물리학을 비롯해, 식물학, 동물학, 심리학, 생리학⁵⁾ 등 모든 과학은 양적인 과학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의학, 역학 등 모든 응용과학 역시 양적인 과학으로 전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데카르트의 구상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체의 학문은 모두 양적 과학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일체의 경험과학이 모두 양적 과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데카르트는 이 모든 과학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수학적 구조를 탐구하는 학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구상을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학이 다름 아닌 "보편수학"(Mathesis Universalis)이다.(Descartes 1985b, 19) 데카르트에 의하면 보편수학은 모든 수학적 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순서와 척도"(order and measurement)(Descartes 1985b, 19)를 탐구함을 목표로 삼는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산수학, 기하학 등 일상적 의미의 수학뿐 아니라 "천문학, 음악, 광학, 역학"을 비롯한 일체의 자연에 관한 경험과학은 이러한 보편수학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의 견해에 의하면 비록 무수히 많은 대상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비추는 태양빛이 하나이듯이 비록 인간의 지혜를 담고 있는 학문이 것처럼 다양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이며 동일한 인간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바로 이러한 "하나이며 동일한 인간의 지혜"가 다름 아닌 보편수학의 지혜인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보편수학이 모든 가능한 학문의 보편적인 방법적 규칙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보편수학의 이념을 토대로 모든 경험과학을 양적인 과학으로 전개시키려는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물론 그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실제로 물리학을 비롯하여 몇몇 경험과학을 양적인 과학으로 전개시키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근대 및 현대과학의 전개과정을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데카르트가 제시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 경험과학을 양적인 과학으로 전개시키고자 시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생물학, 동물학, 생리학, 심리학 등을 양적인 과학으로 전개하려는 시도는 그 후 더욱 더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가 아직 그에 대한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과학들 역시 이러한 연구프로그램에 따라 양적인 과학으로 전개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앞서 살펴본 뇌과학과 수리경제학이다.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경험세계와 관련하여 질적 연구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연구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서 양적으로 규정될 수 없는 일체의 것을 학적으로 탐구될 수 있는 대상 영역으로부터 배제해 버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론적 프로그램에서는 양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질들만이 "실재적인 성질들"(Descartes 1984, 30)이며 양적으로 파악될 수

5) 데카르트가 현대의 과학적 생리학 및 과학적 심리학의 창시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Reed 1991 참조. 그 이외에도 데카르트의 생리학에 대해서는 Hatfield 1992를 참조.

없는 성질들은 단순한 주관적 성질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빛과 그늘이라는 양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빛은 그를 토대로 수학적 정량적 경험과학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데 있으며 그것의 그늘은 바로 양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일체의 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인 논의 밖으로 내몰아졌음을 의미한다. 후설은 근대 수리물리학의 창시자인 갈릴레이(Galilei)가 수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세계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세계가 뿌리박고 있는 “생활세계”를 철저히 망각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갈릴레이를 발견의 천재이자 동시에 은폐의 천재라고 부르고 있는데,(Husserl 1976, 53) 이러한 후설의 지적은 데카르트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과 대척점에 서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검토하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양은 그의 구성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Aristoteles 2003, 1020 a-b) 그 대표적인 예로는 길이, 넓이, 깊이 등이 있다. 이러한 예 이외에도 그는 양의 예로서 수, 음성언어(Aristoteles 1962, 4b)⁶⁾, 직선, 표면, 입체, 시간, 공간 등을 제시한다. 그는 『범주론』에서 양을 4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Aristoteles 1962, 4b)

첫 번째 부류의 양은 연속적인 양인데, 연속적인 양의 경우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연속적인 공동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직선인데 직선의 경우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도 나누어진 두 개의 직선을 연속적으로 결합시켜주는 연속적인 공동의 경계인 점이 존재한다. 직선뿐 아니라 표면, 입체, 시간, 공간 등도 연속적인 양에 해당한다.

두 번째 부류의 양은 비연속적인 양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수이다. 수의 경우 그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결합시켜줄 수 있는 공동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과 7은 10을 구성하는 두 개의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3과 7을 연속적으로 결합시켜줄 수 있는 공동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는 분리되어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양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양이다. 직선의 부분들인 점들 각각은 다른 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선은 이러한 양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 이외에도 이러한 양의 예로는 평면, 입체 등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부류의 양은 부분들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양이다. 음성언어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음성언어를 구성하는 부분들인 각 음절들은 비록 그것들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는 지니고 있을 지라도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공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는 나는 성질로서 그를 통해 어떤 사람이 어떠한지라고 말할 수 있는 바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Aristoteles 1962, 8b) 성질의 예를

6) 음성언어가 양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의 길이가 “길고 짧은 음절을 통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Aristoteles 1962, 4 b.)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성질은 모든 형이상학적 핵심개념들이 그러하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지며 그에 따라 그는 다양한 유형의 성질에 대해 논한다. 『범주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성질을 제시한다.(Aristoteles 1962, 8b 이하)

첫째 유형의 성질은 어떤 사람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혹은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덩, 지식, 정의, 절제 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이러한 것들을 지니고 있는 상태, 혹은 어떤 사람이 더위 혹은 추위를 느끼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아플 경우 이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조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경우 상태는 보다 더 지속적인 성질을 의미하고 조건은 보다 더 가변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의 성질은 무엇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무엇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연적인 기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 누군가가 건강한 기질, 권투선수가 될 수 있는 기질,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는 기질 등이 있다고 할 경우 이러한 기질이 두 번째 유형의 성질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의 성질은 감각적인 성질 혹은 감각을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달콤함, 맛이 씹, 맛이 심, 뜨거움, 더움, 차가움, 창백함, 어두움 등의 감각적 성질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성질들이 감각적 성질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러한 성질이 그에 해당하는 감각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감각적 성질이 외부세계에 실재하며 이처럼 외부세계에 실재하는 감각적 성질이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서 우리가 그러한 감각적 성질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의 성질은 어떤 것의 형상 혹은 외적인 형태, 예를 들면 직선임, 곡선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이 성질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성질 때문에 어떤 것이 그러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 가지 유형의 성질에 대해 논한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네 가지가 엄격한 의미에서 성질이라 불리는 것들이라고 말한다.(Aristoteles 1962, 10a) 그런데 그는 『형이상학』 제5권에서 『범주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또 하나의 성질을 다루고 있다.(Aristoteles 2003, 1020 a-b) 『형이상학』 제5권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성질은 다름 아닌 본질의 “중차”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정의될 경우 “이성적임”은 동물의 일종인 인간을 여타의 여러 가지 동물들과 구별시켜주는 종차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차 역시 성질이라 불릴 수 있다. 이처럼 종차가 성질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는 정의는 “인간은 이성적임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의미의 성질을 “일차적인 의미의 성질”(Aristoteles 2003, 1020 b)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양과 성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첫째, 성질은 많은 경우 서로 대립적인 것 혹은 반대되는 것을 허용하나 양은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어떤 하나의 성질이 존재하면 그와 반대되는 성질이 존재할 수 있다.(Aristoteles 1962, 10b)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성질인 정의로움이 존재하면 그와 대립적인 성질인 정의롭지 않음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양은 대립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한 양의 경우 이러한 양이 대립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4 피트, 5 피트 등에 대해 대립적인 양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혹자는 큰 공간과 작은 공간은 대립적인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양 역시 대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큰 공간, 작은 공간 등은 양이 아니라 관계의 범주에 속한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공간도 자체적으로 크거나 작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다른 공간과의 관계에서만 큰 공간, 작은 공간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Aristoteles 1962, 5a)

둘째, 성질은 정도의 차를 허용할 수 있지만 양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이 창백할 경우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질 수도 있고 덜 창백해질 수도 있으며 현재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더 창백할 수도 있고 덜 창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은 정도의 차를 허용하지 않는다.(Aristoteles 1962, 6a) 예를 들어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보다 더 혹은 덜 4 피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이 모두 삼각형일 경우 그 중의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삼각형이라거나 덜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의 경우에도 “3이 5보다 더 3이다”라거나 혹은 “5가 3보다 덜 3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셋째, 성질이란 그를 토대로 어떤 두 가지 것이 “유사하다 혹은 유사하지 않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Aristoteles 1962, 11a)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물은 갈색이라는 성질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다른 사물과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양은 그를 토대로 어떤 하나의 사물이 다른 하나의 사물과 유사하다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하나의 양은 다른 양과 같다 혹은 같지 않다고 불릴 수 있을 뿐이다.(Aristoteles 1962, 6a)

그러면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질적 연구의 대상인 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양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양적 연구의 대상이요 성질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질적 연구의 대상일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양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양적 연구의 대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양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대부분 데카르트의 양적 과학론적 프로그램이 해명하고자 하는 양이 아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대상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대상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와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및 형이상학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질적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자.

1) 질적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첫째 유형의 성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성질로 분류했던 것을 포함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성질로 분류했던 것은 데카르트의 연장실체의 본질적 속성인 연장, 즉 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에는 i) 어떤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혹은 조건, ii) 그 어떤 사람 혹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바, 무엇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 내지 무엇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iii) 달콤함, 뜨거움, 더움 등의 감각적 성질, iv) 직선임, 곡선임 등과 같은 어떤 것의 형상 혹은 외적인 형태 등이 속한다.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종차역시 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들은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 정체가 해명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달콤함이라는 감각적 성질 그 자체는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 정체가 해명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질적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질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질적 연구의 대상인 성질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성질로 규정한 것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이라고 규정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이라고 규정한 것 중에서 분명히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의 대상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측정할 수 있는 그 어떤 크기를 지니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길이, 넓이, 깊이 등은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으로 규정한 모든 것이 수학적인 정량적 분석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공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은 데카르트의 연장실체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인 연장, 즉 양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은 데카르트의 공간과는 전혀 다르다. 데카르트의 공간은 그야말로 텅 빈 균질적인 공간으로서

공간을 구성하는 부분 공간들 사이의 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돌이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돌이 빠져나가고 대신 그 자리에 물이나, 공기 또는 여타의 물체가 들어올 경우에도 저 공간은 이전과 동일한 공간으로 남는다.(Descartes 1985a, 228)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데카르트의 공간은 수학적 양적 분석을 통해 그 정체가 해명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모든 사물들은 나름의 본성, 본질을 지니며 따라서 어떤 특성의 본질을 공유하는 사물들과 다른 본질을 공유하는 사물들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처럼 나름대로 고유한 본질을 지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은 그들 자신의 “고유한 장소”를 향해서 운동한다.(Aristoteles 1980, 211a) 따라서 어떤 특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게 고유한 공간은 그와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물에게 고유한 공간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은 데카르트의 경우와는 달리 등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각기 서로 다른 나름의 고유한 본성을 지니는 공간이며 그와 관련해 “위와 아래”, “앞과 뒤”, “오른 쪽과 왼쪽”(Aristoteles 1980, 205b, 211a) 등을 구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간은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3)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 및 형이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실체 역시 수학적 정량적 분석의 방법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으로서 질적 연구의 대상인 질에 해당한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실체는 데카르트의 연장실체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의 연장실체가 연장이라는 본성 이외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한에서 개별적인 연장실체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방금 전에도 지적되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어떤 특성의 부류에 속하는 경험적 실체는 그에게 고유한 본질을 지니며 따라서 어떤 특성의 부류에 속하는 어떤 경험적 실체는 다른 부류에 속하는 어떤 다른 경험적 실체와 전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경험적 실체를 제일실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제일실체와 구별되는 제이실체의 존재에 대해 논하고 있다.(Aristoteles 1962, 2 a-b) 그런데 이러한 제이실체 역시 수학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그 정체가 파악될 수 없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제이실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 존재하며 우리가 경험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인간이 제일실체라고 한다면, 이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공유하는 보편적인 성질인 “인간”, “동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인 성질이 제이실체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이실체는 그 어떤 제일실체를 그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제일실체의 본질적 성질을 의미하며 이처럼 그것이 일종의 본질적 성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학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없다. 그것은 질적 분석을 통해서만 그 정체가 해명될 수 있는 일종의 질이다.

4) 나아가 질적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질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이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등장하는 다른 여타의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것들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시간 역시 질적인 것으로 파악된 시간이지 데카르트의 경우처럼 수학적 의미에서 엄밀하게 양적인 것으로 파악된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 개념에 기초해서 시간 개념을 해명하고 있다. 이 경우 운동이란 어떤 사건이 흘러감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흘러감으로서의 운동을 “이전-지금-이후”라는 운동의 연속적인 차원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바로 “이전-지금-이후”이라는 이러한 연속적인 차원이 다른 아닌 시간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운동이 지니고 있는 이전임과 이후임 속에서 존재하는 운동의 차원이며 운동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시간은 연속적이라고 주장한다.(Aristoteles 1980, 220a) 이처럼 시간이 운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이전-이후와 관련된 운동의 수로 규정한다.(Aristoteles 1980, 219 a-b) 물론 시간이 이처럼 운동의 수로 규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데카르트적인 의미의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지금”이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연결시켜주는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을 보고 “그가 ‘지금’ 온다”고 말할 경우 “지금”이 “오늘”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Aristoteles 1980, 222a), 지금이 이처럼 여러 가지

뜻으로 말해질 수 있다 함은 그것이 데카르트적인 의미의 양이 아니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간임을 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혀졌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의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험적 대상은 양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질적인 탐구의 대상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대상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문을 일종의 질적 연구로서 정립하려는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적 대상에 대한 모든 학문을 양적 연구로 정립하고자 시도한 데카르트와는 정반대되는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질적 연구와 관련된 현대적인 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떤 점에서 질적 연구에 대한 현대적 논의는 부분적으로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통해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도 있다.

3.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르트의 양적 연구 프로그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양적 연구 프로그램과 질적 연구 프로그램이 각각 무엇이며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데카르트의 과학론적 프로그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양자를 돌아보면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 앞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과 관련한 오해 두 가지를 검토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1)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전통철학적 논의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

전통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각기 자신이 처한 철학적 문제의 맥락에서 양과 질의 구별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흔히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전통철학의 논의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위해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한 이러한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수행한 양과 질에 대한 구별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구별함에 있어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양과 질에 대한 그들의 구별이 대부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이 참여한 철학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20세기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전통철학자들이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경우 그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양과 질의 구별에 대한 그들의 논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위해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점을 앞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양과 질은 실체, 관계, 장소, 시간 등과 더불어 그가 제시한 10가지 범주에 속한다. 물론 그가 제시한 질이 질적 연구의 대상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가 제시한 양은 대부분의 경우 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양적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질적 연구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의 경우 양이라는 범주와 질이라는 범주 이외에도 다양한 범주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질적 연구의 대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10개의 범주에 속하는 양과 질의 구별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담당하지 못한다.

데카르트의 경우에도 그가 제시하는 양과 질의 구별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을 위해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데카르트의 성질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는 두 가지 종류의 성질을 구별하는데, 그것은 “실

재적인 성질들”과 “촉각적 성질”들을 비롯한 감각적 성질이다.(Descartes 1984, 30)

감각적 성질은 실체에 실제로 귀속되는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주체가 감각을 통하여 실체를 만날 때 주체가 느끼는 주관적 성질이다. 데카르트는 주관적 성질의 예로 “빛, 색깔, 소리, 냄새, 맛, 더위, 추위, 그리고 기타 촉각적 성질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성질들은 연장실체의 “실재적인 성질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연장실체를 만날 때 우리의 정신이 연장실체가 지니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성질에 불과하다. “감각적 성질”은 연장실체의 실재적인 성질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단순한 주관적인 성질에 불과하다.

감각적 성질과는 달리 실재적인 성질이란 실체에 실제로 귀속되는 객관적 성질을 의미한다. 앞서 우리는 실체의 양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실체의 양태가 다름 아닌 실체의 성질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실체의 양태와 실체의 성질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실체의 양태는 그를 통해 실체가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는데, 데카르트에 의하면 실체가 양태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실체가 양태에 따라 것처럼 변화하는 성격을 가진 것임을 지칭하고 싶을 때 성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Descartes 1985a, 211) 따라서 우리는 실체의 성질이 실체의 양태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고 다만 그 지칭하는 방식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실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 이외의 여타의 모든 속성들이 양태이며 바로 이러한 속성들이 실체의 성질이다. 사물을 예로 들자면 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연장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속성들, 예를 들면 크기, 형태, 운동 등이 실체의 성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실체의 양태와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실체의 성질은 실체에 실제로 귀속되는 객관적 성질을 뜻하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실재적 성질”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은 사물적 실체에 한정시켜 논의할 경우 사물적 실체의 실재적 성질은 철저하게 양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물적 실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연장이며 연장이 수학적으로 측정가능한 양을 지닌 것이어서 이러한 연장에 의존적인 여타의 모든 속성들, 즉 실체의 성질들은 양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의 경우 양과 질이 언제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주관적인 성질이라 불릴 수 있는 감각적 성질이 양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성질이라 불리는 실재적 성질은 양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양이다. 데카르트의 경우 이처럼 양과 질이 언제나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을 위해 아무런 단서도 제공해줄 수 없다.

2) 자연과 정신의 구별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

혹자는 자연과 정신의 구별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양적 연구는 자연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질적 연구는 정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별에 따르면 자연과학은 양을 본성으로 하는 자연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서 그것은 양적 연구와 동일하며 반면 정신과학은 질을 본성으로 하는 정신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서 그것은 질적 연구와 동일하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이러한 식의 구별이 부분적으로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근본도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도 논의되었듯이 데카르트는 유한실체를 물체와 정신으로 나누는데, 이 경우 사물은 자연에 해당하며 영혼은 정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양적 연구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동일

한 것이요, 질적 연구가 정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학과 동일한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차적으로 양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물리적 자연은 양적 학문인 물리학의 대상이다. 그러나 자연이 언제나 양적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적인 관점이 아니라, 질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학자는 자연을 경험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수 있고 인문지리학자는 자연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지닌 인문지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경우 자연은 양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질적 연구의 대상이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연구가 양적 연구와 동일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차적으로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정신은 질적 연구로서의 역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이 언제나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신을 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양적인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뇌과학, 실험심리학, 수리경제학 등을 들 수 있다. 의식이 뇌과학, 실험심리학, 수리경제학 등에서 연구될 경우 그것은 질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양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에 대한 연구가 질적 연구와 동일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상 영역 또는 존재 영역의 구별로서의 자연과 정신의 구별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양적 연구가 자연과학과 동일한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요, 질적 연구가 정신과학과 동일한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 학문들이 존재 영역의 하나인 정신의 영역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데카르트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 학문들이 존재 영역의 하나인 자연의 영역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다.

4.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

그러면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구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구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다름 아닌 태도(Einstellung)이다. 태도는 후설의 현상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그것은 주체가 대상 및 세계를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을 뜻한다. 그런데 주체가 가지고 들어가는 태도가 다름에 따라 세계는 주체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세계로 현출하며 세계 속에서 현출하는 개별적인 대상 역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현출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어떤 산 속에 있는 어떤 나무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나는 등산을 하면서 이 나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는 이 나무를 등산객의 태도에서 경험한다. 이처럼 내가 이 나무를 등산객의 태도에서 경험하게 될 경우 이 나무는 등산을 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경험된다. 예를 들어 그것은 무더운 여름 내가 등산을 하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그 밑에 가서 쉴 수 있는 나무로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무를 미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나는 이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 아름답지 않은 나무 등 여러 가지 미학적인 의미를 가진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나는 이 나무를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나무를 심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나는 이 나무를 훼손한 사람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면서 이 나무를 경험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이 나무를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험할 수도 있다. 내가 기독교 신자일 경우 나는 이 나무를 창조주의 창조물로 경험할 수 있고 불교 신자일 경우 윤회의 산물로 경험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나는 이 나무를

경제적 태도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이 나무의 수액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경우 나는 이 나무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나는 이 나무를 생물학적 태도에서 경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나는 이 나무를 어떤 종에 속하며 특정한 유전자적 배열을 가진 나무로 경험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이 나무를 물리학적 대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나는 생물학적 특성까지 포함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배제하고 이 나무를 특정의 물리적 공간과 물리적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순수하게 물리학적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어떤 대상을 특정한 태도에서 경험할 경우 이 대상을 포함하는 세계 전체는 그러한 태도를 통하여 각인된 세계로 경험된다. 따라서 내가 서로 다른 다양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세계는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현출한다. 예를 들어 내가 등산객의 태도를 취하면 세계는 나에게 등산객의 세계로 현출한다. 더 나아가 내가 미학적 태도, 윤리적 태도, 종교적 태도, 경제적 태도 등을 취하면 세계는 나에게 미학적 세계, 윤리적 세계, 종교적 세계, 경제적 세계 등으로 경험되며 내가 생물학적 태도와 물리학적 태도를 취하면 세계는 나에게 생물학적 세계, 물리학적 세계 등으로 경험된다.

태도 및 세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정체를 이해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질적 연구뿐 아니라 양적 연구 역시 주체가 대상에 대해 어떤 특정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상이 주체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체가 대상에 대해 그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을 경우 대상은 경험될 수 없으며 대상이 경험되지 않으면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유형의 연구도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주체가 세계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취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세계 중에서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근원적으로 구성되어 주체에게 현출하는 세계는 바로 일상적인 생활세계이다. 일상적인 생활세계는 미적 세계, 윤리적 세계, 종교적 세계, 경제적 세계 등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세계들이 혼재해 있는 영역으로서 일종의 질적인 세계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추상 작업을 거쳐 다양한 유형의 세계가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상적인 생활세계는 모든 여타의 세계들의 모태에 비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세계는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여타의 세계들에 비해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활세계라는 모태가 없으면 그 어떤 유형의 세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토대로 추상 작업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세계들이 추상되는 방식에 따라 그것들은 질적 연구의 대상인 질적인 세계와 양적 연구의 대상인 양적인 세계로 나누어진다.

우선 생활세계로부터의 추상이 “수학적인 수단”을 매개로 하여 수행될 경우 양적 연구의 대상인 양적인 세계가 출현한다. 이처럼 주체가 생활세계로부터 “수학적인 수단”을 매개로 하여 추상작업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추상작업을 통해 주체에게 현출하는 세계는 “수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세계”로 탈바꿈하는데, 이는 주체가 “수학적인 틀”을 통해서 생활세계에 들어 있는 무수히 다양한 질적인 요소들을 추상하고 생활세계가 지니고 있는 “수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측면”만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이데거는 주체가 생활세계를 토대로 “수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세계”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인 수학적 틀을 “자연 자체에 대한 수학적 기투”(Heidegger 1972, 362)라 부른다. 하이데거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앞서 살펴본 데카르트의 양적 연구의 프로그램은 “자연자체에 대한 수학적 기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양적 연구의 대상 전체는 바로 이러한 “자연 자체에 대한 수학적 기투”를 통해 구성된, 수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세계이다. 물론 이러한 수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세계는 다양한 부분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영역들 각각은 각기 다른 양적 과학을 통해 탐구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세계를 살펴보면서 생물학적 세계와 물리학적 세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러한 세계들이 양적인 세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이처럼 생활세계를 토대로 수학적 기투를 통해서 구성된

세계 이외의 다양한 세계들을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뜻한다. 이처럼 수학적 기투를 통해 구성된 세계 이외의 다양한 세계들이 다름 아닌 질적 세계들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적 세계의 예로 미학적 세계, 도덕적 세계, 종교적 세계, 경제적 세계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세계의 예는 그 이외에도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일상적인 생활세계는 그야말로 “수학적 기투”를 통해서 포착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성질들로 가득 찬 세계이며 이처럼 무수히 많은 다양한 성질들 중에서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 추상 작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질적 세계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활세계 속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질적 요소들 중에서 사회적인 측면만을 추상할 경우 사회세계가 등장하고, 정치적인 측면만을 추상할 경우 정치세계가 등장하며, 간호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등을 추상해내면 간호세계, 교육세계, 문화세계 등이 등장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모두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5.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다양한 가능성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질적 연구의 대상인 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름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질이 무엇이며 양적 연구와 구별되는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상학적 해명을 위해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질적 연구가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질을 체계적으로 조망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질적 연구에 대한 현대적 논의와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지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난점은 그것이 실재론을 전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실재론에 의하면 인식하는 주관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모사하며 반영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론을 전개하면서 감각적 성질의 문제를 다룰 때조차 실재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그는 “뜨거움”, “차가움” 등의 감각적 성질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감각적 성질이 사물 속에 실재하며 이처럼 사물 속에 실재하는 감각적 성질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감각이 그러한 성질을 느끼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Aristoteles 1962, 9a) 그런데 이러한 실재론은 다양한 유형의 질을 주관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상정하면서 그러한 질이 그에 대해 주관이 다양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다양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앞서 논의된 데카르트의 감각적 성질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조차 남겨놓고 있지 않다.

둘째, 그런데 우리가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입장을 고려하면 질적 연구와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이 지닌 한계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상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서게 되면 우리의 다양한 체험들이 그의 노에마적 상관자인 의미를 지닌 대상들과 더불어 질적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은 현상학적 심리학의 차원에 대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체험들과 더불어 그의 노에마적 상관자들이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에서 체험은 성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논의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의의가 전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셋째, 우리가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고려하면 질적 연구와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이 지닌 한계가 더욱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입장에 의하면 초월론적 체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구성되는 토대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론을 통해 제시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주들 역시 초월론적 주관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들이 아니라,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유형의 세계를 초월론적 주관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세계로 간주하므로 것처럼 구

성된 세계의 질적 구조를 파악할 수도 없고, 것처럼 구성된 세계의 이면에 그것을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현상학적 심리학적 문제지평과 초월론적 현상학적 문제지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해 그는 시간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간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의식의 관계”(Aristoteles 1980, 223a)를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다양한 유형의 경험의 토대가 되는 주체의 영혼활동과 관련해 “어떤 점에서 영혼은 있는 것들의 전체이다”(Aristoteles 1969, 431b)⁷⁾라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주체에게 현출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존재자가 영혼의 구성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주체에게 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재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현상학적 심리학적 문제와 초월론적 현상학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천착할 수 없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범주론을 통해 질적 연구의 대상인 다양한 유형의 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해명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그는 질적 연구의 대상인 질의 규정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철학이 지닌 실재론 때문에 현상학적 질적 연구가 해명해야 할 다양한 차원 및 유형의 질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차원과 유형의 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론적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면서 앞서 살펴본 질적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몇 가지 예를 통해 질적태도가 양적태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대상 및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질적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것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의 질적태도는 생활세계적 태도 내지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이다. 생활세계적 태도는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런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과학적 태도와 구별해 자연적 태도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 태도로서의 생활세계적 태도는 개인에 따른 다양한 직업적 삶의 태도, 미학적 태도, 윤리적 태도, 종교적 태도, 역사적 태도, 언어적 태도, 사회적 태도, 정치적 태도, 경제적 태도, 문화적 태도, 법률적 태도, 교육적 태도, 간호적 태도, 의료적 태도 등 수없이 다양한 태도들을 포함하며 이 여러 가지 태도들 각각은 다시 다양한 부분적인 태도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윤리적 태도의 경우 개인윤리적 태도, 사회윤리적 태도, 직업윤리적 태도, 환경윤리적 태도, 성윤리적 태도 등 다양한 부분적 태도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유형의 질적태도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이다. 앞서 살펴본 생활세계적 태도 내지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토대로 한 태도인데 반해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에 대해 판단중지를 수행할 때 가능한 태도이다. 물론 이러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 역시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정적 현상학적 초월론적 태도와 발생적 현상학적 초월론적 태도의 구별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태도에 따라 어떤 하나의 대상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나무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대상은 우선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적 태도에서 경험되고 연구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정적 현상학적 태도, 발생적 현상학적 태도 등에서 연구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다양한 유형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존재자도 마찬가지이다. 그 어떤 범주에 속하는 존재자이건 모두 다양한 유형

7) 이 점에 대해서는 Heidegger 1972, 14를 참고할 것.

의 생활세계적 태도에서 경험되면서 연구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경험되면서 연구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실재론에 머물면서 주체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태도에 따라 각각의 존재자가 무수히 다양한 유형의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바로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연구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유형의 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유형의 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는 다양한 유형의 태도에 대한 현상학적 논의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가 다양한 유형의 태도에 대한 현상학적 논의를 통해 보충될 때 우리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총체적인 가능성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